

TTA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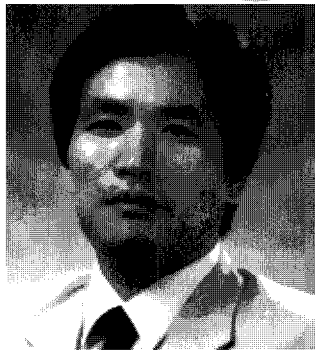
TTA 포커스

임주환 박사, ITU SG7 부의장에 선임

지난 3월 1일부터 3월 12일 까지 핀란드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1차 세계전기통신표준화 회의에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주환박사가 ITU에 가입한지 41년만에 처음으로 SG7의 부의장으로 선임되었다.

SG7은 데이터 통신과 개방형 통신을 다루는 그룹으로 기존 통신망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제정하는 분야와 향후 개방형 통신환경하에 필요한 각종 프로토콜의 제정과 검증에 관련된 분야로 차기 4년간의 회기기간 중에 25종의 과제가 토의될 예정이다.

임주환 박사는 부의장으로 선



출된 소감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세계적인 위상을 고려해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시점에서 본인의 부의장 선출은 막중한 책임을 느끼게 하며, 요즘의 정보통신은 생산 경쟁 - 판매경쟁 - 표준화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세계적

인 표준화 추세를 잘 파악하여 국내 표준화의 방향 정립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표준화에서 경제전쟁의 포성이 터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는 이때 급변하는 주위환경에 맞춰 국내의 표준화 활동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체제의 변화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국내 기업체가 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도 이전 막연한 정부지원이나 세제혜택을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직접 표준화의 전쟁터에 뛰어들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DI 보급확대 걸림돌

국내EDI(전자문서교환) 산업을 초기에 육성·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EDI사용자 그룹들이 각 산업별로 작성한 전자문서 활용지침서 (MIG)를 국내의 여러 EDI사업자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들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MIG의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

다.

3월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정보통신(주)이 지난해 말 무역자동화사업을 본격 개시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에도 금융·외환·상역·유통 등 각 산업별로 MIG(Message Implementation Guidelines)의 보급이 본격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

나 EDI사업자나 EDI사용자 그룹들이 자신들의 사업활성화를 위해 작성한 MIG를 다른 경쟁 VAN 사업자나 EDI관련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공개하는 것을 기피, MIG의 보급·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바코드

TTA FOCUS

분야의 국제 표준화 기관인 EANCOM이나 미국의 자동차 업계의 이익단체인 AIAG 등은 유통업계나 자동차업계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MIG를 UN /EDIFACT나 ANSI표준에 따라 작성, 배포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는 이같은 여건이 전혀 조성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 EDI표준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 EDIFACT 표준원」은 그동안 전자문서구문 규칙·설계지침서 등의 분야에서 국내표준을 제정, 보급하고 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MIG분야의

표준화업무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한국무역정보통신(주)이 무역자동화사업을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MIG를 작성, 운용하고 있고 한국 EDIFACT 위원회도 산하에 각 산업별로 사용자그룹을 결성, MIG의 보급 활성화를 꾀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중에 무역자동화사업을 개시할 데이콤과 앞으로 EDI사업을 적극 활성화할 예정인 VAN사업자들은 「한국무역정보통신(주)이나 한국EDIFACT표준원이 그동안 업계와 공동으로 작성한 MIG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데이콤은 오는 5월부터 신용장 업무를 중심으로 EDI사업을 개시할 예정인데 EDI분야의 준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MIG를 입수하지 못해 별도로 MIG를 작성해야 할 형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자칫 잘못하면 똑같은 무역 EDI분야에서 별도의 MIG가 작성, 보급될 우려가 크다」며 이는 EDI의 보급·확산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G3C 팩스 국제표준 확정

G4규격의 팩시밀리에 이어 기존의 전화망과 ISDN(종합정보통신망)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G3C규격 팩시밀리가 국제표준으로 확정돼 국내에서도 이 분야의 기술개발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월 19일 체신부에 따르면 ITU(국제전기통신연합) 주최로 지난주 핀란드 헬싱키에서 폐막된 제1차 세계전기표준화회의에서 미국등 북미지역 국가들은 현재 ISDN전용의 G4팩시밀리에 기존의 G3급 기능을 향상시킨 새로운 G3C급 팩시밀리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 이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세계전기표준화회의에서 국제표준으로 새로 채택한 이 G3C급 팩시밀리는 기존 전화망

은 물론 ISDN에도 접속할 수 있는 기종으로 G3급 팩시밀리의 경우 A4용지 한장당 20~30초 걸리는 전송속도가 5~6초밖에 걸리지 않는 새로운 제품이다.

그러나 현재 G4팩시밀리의 개발을 끝내고 제품화에 나서고 있는 일본은 이번에 채택한 G3C규격이 G4규격과 호환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 이를 강력히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세계전기표준화회의에선 앞으로 G3C급과 G4급간의 통신호환성 문제를 연구하기로 하고 미국 등에서 제안한 G3C규격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했다.

체신부는 G3C급 팩시밀리가 국제표준으로 확정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국내표준규격을 제정, 국내업체들로 하여금 이의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

이다.

이밖에도 이번에 열린 세계전기통신표준화회의에선 호주가 제안한 범세계적인 통신을 위한 개인별 고유번호 부여 방안(UPT: Universal Personal Telecommunication)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이 서비스의 번호체계로 기존의 ISDN번호를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에 체신부를 비롯, 한국통신 등 통신사업자, ETRI(전자통신연구소), TTA(통신기술협회)등 21명의 대표단을 구성, 파견했는데 ETRI의 정보통신표준화 연구센터 소장인 임주환 박사가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ITU산하의 데이터망 및 개방통신시스템(SG7) 연구그룹의 부회장으로 선임됐다.